

미취학·학업중단학생, 학력인정의 길 열렸다

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.

대전시교육청은 10일 이달부터 학업 중단 이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할 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.

대상자는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로,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, 입학했지만 학교에 장기간 다니지 않은 사람이다.

대상자들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·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위탁교육기관인 대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, 자격증 취득 등 학교 밖 학습경험, 온라인 강의를 이용한 교과교육과정 이수,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시간 등을 학습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 연 2회 실시되는 대전시교육청 학력심의를 통해 초등·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정받으면,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해진다. 김대욱 기자

<저작권자©대전일보사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>